

## 찾아가는 목회,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목회

유수상 (목사, 경남 거창 중촌교회)

### 농촌에는 뭐 하러 왔노?

나는 오늘도 농촌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 잘 나가던 직장을 접고 신학교 문을 두드렸다. “하나님 전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가렵니다. 그곳에서 민초들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누렵니다.” 6년간의 신학 수업을 마치고 1998년 1월 목사 안수를 앞둔 시점 주위 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내와 아들 둘과 함께 차디찬 눈보라를 헤치고 거창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 시골에서 목회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농민운동을 위함이었다. 갈수록 힘든 농촌의 현실과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는 각박한 세상, 풀 한 포기조차 살아갈 여유가 없는 도시가 싫어 농촌을 계몽하고 필자 또한 농촌에서 여유를 가지며, 아이들에게도 자연과 더불어 교육하는 게 좋겠다 싶어 과감히 길을 나섰던 것이다.

막상 농촌의 현실은 도시에서 바라보았던 것과는 많은 거리가 있

었다. 전원에서 여유를 갖고 즐기며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하는 꿈은 첫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장에서 여지없이 깨어졌다. 입학생 12명중 2/3가 도시에서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보내진 아이들이었다. 또 농민들과 더불어 농사지으며 지역 경제를 한번 활성화 시켜보아야지 했던 포부는 농협을 만나면서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내가 할 일이 분명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을 어디를 가나 막걸리 잔에 고스톱 판을 벌린 노인들만 가득한 모습, “젊은이들은 떠나고 나이드는 우리가 무슨 꿈이 있노?” 하시면서 한숨지으시는 어르신을 보며, “내가 저들의 이웃이 되어야겠다” 라는 각오를 했다. 어떻게 이웃이 될 것인가? 무엇으로 저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사회복지 공부를 다시금 시작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7년 간의 농촌목회생활과 농촌복지를 실천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새롭게 농촌복지에 관심을 가진 이들과 상황이 비슷한 현장의 농촌지역의 동역자들에 좋은 안내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유수상 목사가 시무하는 중촌교회

## 소신 있게 목회현장을 뛰어다니자

별 알아주지도 않는 산골에서 배 훑아가며 몸부림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나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 가는 생명을 살린 사랑의 모습을 감당하려 한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기보다는 피폐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다. 바로 그곳 갈릴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되어지고 있다. 생명의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는 예수처럼 갈릴리로 가야 한다. 나는 오늘의 갈릴리인 농촌에서 섬김과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이 이 시대에 소망을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많은 이들이 농촌에 뜻을 갖고 오지만 2-3년이면 현장을 떠나고 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주변에 지나가신 분들을 보며 나 또한 동일한 상황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본다. 지난 7년 동안 필자 주변을 바람같이 스치고 간 동역자들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전상 후퇴형**: 준비 없이 농촌에 오신 분들이다. 새로운 임지를 구하기 위해 잠깐 머무르는 휴양지역으로 농촌을 선택한 유형이다. 언제든지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둘째, **최후 방어선 구축형**: 밀려서 밀려서 농촌에 자리하신 분들이다. 은퇴 직전이나, 은퇴 이후 도시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으며 현장을 굳굳이 지키시는 유형이다.

셋째, **후방 긴급 낙하형**: 뜻을 갖고 왔는데 급하게 오다보니 현장에서 할 일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유형이다. 이것, 저것 프로그램을 실시해보지만 도시의 사례를 적용, 동일한 결과를 얻기 원하는 부류이다. 또한 현장에서 빠져나가고는 싶은데 시기를 놓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유형이다.

넷째, **임전무퇴형**: 농촌현장에 오기 전에 현장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철저한 준비 속에 현장에 온 유형이다. 이 유형은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물러서지 않아 좋은 농촌목회 현장의 참신한 모델을 만들어 낸다.

필자는 어떤 유형일까? 요즘 아이 진학 문제로 집사람과 고민하며 적지 않은 유혹(도시교회로부터의 청빙 유혹)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고, 남아 있는 일이 분명한데 어디로 간단 말인가? 오늘도 나는 이 시대 마지막 남은 자로, 상수리나무의 그루터기로 소신을 갖고 이 산하를 좌충우돌 누비고 다닌다.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이다.

## 내가 밭 디디고 사는 땅은 어떤 곳인가?

7년 전에 처음 부임하여 지금까지도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것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을 파악 목회에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나름의 설문지를 만들어 주민들을 접촉하며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은 노인촌이다**: 2003년 3월 현재 거창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 67,224명 대비 11,514명으로, 군 인구의 17.1%를 차지해 이미 고령사회이며, 빠른 시일 내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가 사는 가북면은 34.0%로 거창에서도 가장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한편 독거노인은 전체노인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수급권자가 30%를 차지한다. 또 노인부양비(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는 26%로 전국 평균 11%, 경남 평균 13%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것은 노인부양 부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 **농촌 장애인의 문제이다**: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통계(등록장애인)만 가지고 있을 뿐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이다. 장애인의 자활과 재활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전무하며, 사회적 인식도 바뀌지 않고 있다. 교육수준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거창

군 전체 장애인의 58.8%가 초등학교 미만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국평균(2000년 조사) 23.2%에의 두 배가 넘는 비율이다.

3) **농촌 아동복지의 문제이다:** 필자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전체 35명의 아동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집에 위탁되어 양육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 그 중에는 수급권자인 아동도 있지만 생계만이 아니라 이들의 학업이나 기본적인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빈곤, 학력의 빈곤이 세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5세 미만의 아동이 다닐만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 없어 농사현장에 노출되어 있거나, 엄마가 농사현장에 참여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현실이다.

4) **농촌 자원봉사 인력의 한계이다:** 교회의 인력자원이 부족하고 또 행정기관과 관련되어진 각종 단체가 먼 단위에 오면 한사람이 3-4가지 정도의 단체에 소속되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순수 민간자원봉사자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5) **농가소득의 문제이다:** 젊은 사람조차도 농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전개되어질 정부의 농업 정책에 희망을 가져 보지만 농민보다는 상공인의 이익이 앞서는 정책이고, 농민의 자연감소로 인해 정부의 정책도 후퇴하고, 남은 사람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맨 땅에 헤딩하기

감나무 아래 누워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기에는 필자의 나이가 너무 젊다. 부임당시 35살의 오만방자함과 패기로 툭툭 뭉쳐져 “나는 어디에 굴러 떨어져도 해 낼 것이다” 하고 자기충천해 있었다. 그러나 물질, 인적, 사회적 자원이 전무한 가운데 일을 시작하기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냥 시간만 흘러 보내기에는 그  
간 준비해 온 농촌목회의 자료들을 사장하는 것이 아닌가. 짐사람과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해 무  
리하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다. 지난 7년 동안 지  
역주민들과 함께 삶을 나눈 부분들을 조심스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에서의 목회사역 기본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역이다.  
주민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으니 내가 찾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이다. 대부분의 주민이 노인들이라 그분들의 삶에 깊이 다가가기 위  
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소규모 생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초  
등학교 폐교를 임대하고 시설을 준비했으나 농촌 어르신들의 정서로  
는 당신의 집을 떠나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단인가를 알  
수 있었다.

이 후 “찾아가는 목회(복지),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목회(복지)”를  
목표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만들고 현장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승합  
차에 교회 이름 대신 ‘재가복지봉사센터’라는 문구를 적어 다니자 많  
은 분들이 물어오기 시작했다. 농촌에서 재가복지라는 단어조차 생



제가 노인들을 위해 반찬을 가지고 찾아가는 유수상 목사

소했기 때문이다. 차에 '재가복지'라고 쓴 한 단어가 지역주민들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면사무소 복지사를 통해 지역대상자를 추천 받아 가정방문을 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목욕이었다. 하루에 버스가 4번 정도 왕래하고 거동하기가 힘들어 목욕을 하기란 일년에 서너 차례가 전부란 말을 들었다. 우선은 외상 어르신을 제외하고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 여섯 분을 한 조로 두 팀을 만들었다. 9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의 격주로, 7월, 8월은 월 1회를 주기로 목욕팀을 만들었다. 지역 목욕탕의 협조를 구해 목욕비를 절반으로 할인 받고 목욕의 기쁨을 드릴 수 있었다.

둘째, 밑반찬 제공이었다. 농촌의 특성상 채소류는 자기 손으로 농사해 자급자족하는 편이나 반찬의 다양함이 없으며 홀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양과 질적인 면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반찬을 접하기가 어렵다.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생각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목욕을 마치고 교회차량을 타는 마을 노인들

맛과 영양이 있는 반찬을 격주로 40여 가정에 제공을 했다.

셋째, 병원동행 서비스이다. 농촌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질병이 몇 가지 있는데, 관절염, 고혈압, 당뇨, 백내장이다. 이 질병들은 꾸준히 평소에 관리해야하는 병이다. 지역의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진료수준이 낮고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져(읍내까지 1시간 버스로 이동) 이들을 모시고 지역 내 분야별로 이름 있는 의사를 찾아 개인별 질병 관리를 하고 있다. 가깝게는 거창 멀리는 서울, 여수, 부산 등지의 명의에게 찾아가기도 한다.

넷째, 이·미용 지원서비스이다. 외상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한 부모세대 아동들을 중심으로 월 1회 거창지역의 이·미용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수고를 해주고 있다.

다섯째,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농촌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해본 결과 경로당 중심으로 소규모(10명 내외)로 야외 나들이와 농한기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우선 동네 경로당별로 일년에 두 차례 당일로 다녀올 수 있는 관광코스를 알리고 신청을 받아 산골을 벗어나 외부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위성방송이 나오기 전까지는 TV 난시청 지역이라 공시청 안테나를 달아 난시청 해소에 노력했는데 영화나 관람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우선은 프로젝터를 구입 80인치 대형화면에 영화 보기, 국가적 주요행사나 스포츠 경기를 중계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었다. 여기에서 새로운 욕구를 찾고 파악함으로써 향후 필요한 서비스와 지난 서비스의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여섯째, 지역에서 마을단위 축제 행사를 가지고 있다. 이 곳에는 11개의 자연마을이 있다. 일년에 두 차례정도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위로하고 마을대항 노래자랑대회, 윷놀이대회, 게이트볼대회 등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문화를 통해 단결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3년째하고 있는데 해마다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일곱째, 지역 생산물의 직거래 운동이다. 농가의 소득과 직결된 부분으로 농산물 가격이 비싼 경우는 외지 상인의 발매기에 피해를 보고, 가격이 낮으면 판로를 찾지 못해 밭에서 폐기 처분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을 보고 도시와 직거래하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현재는 적은 규모지만 일부 농산물로 직거래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보고자 한다.

여덟째, 지역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방과 후 공부방, 계절별 테마학습여행, 컴퓨터, 피아노 등을 가르치며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꿈을 키워주는 작업이다. 그 첫 열매의 아이들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가운데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 일을 하겠다는 재목도 있다.

아홉째, 지역 조직과 자원개발이다. 사역에 동참 할 일꾼이 부족한 가운데 여러 가지 행사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교회가 하는 일에 동역자로, 협력자로 만들기로 했다. 우선은 지역 내 사회단체 가입과 활동이다.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모습

자원은 가만히 앉아 개발할 수 없다. 발로 뛰어 다녀야 한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첫째 자원은 공공기관의 담당자와의 협력이며, 둘째 자원은 지역 내 봉사단체와의 연계이며, 셋째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한 직업계층의 인적 자원과의 교류이다. 이들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교회가 행하는 프로그램에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고 있다.

## 우리 상황에 맞게 예배의 시간과 장소 형태의 변화

농촌은 시간의 변화에 민감하다. 발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가 열리고, 수확하고 정해진 자연의 시간에 따라 자연과 더불어 순응과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꼭 이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일 것이다. 주일 낮 예배 11시를 제외하고는 예배시간과 장소가 일정치를 앓다. 그렇다고 원칙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예배의 횟수를 줄였다. 부임 당시 할머니 한 분 출석하는 교회이었기에, 새벽기도, 수요일, 주일 낮, 오후, 금요구역 이런 전통적인 예배의 형태를 탈피, 수요일은 마을 단위 중심의 수요사랑방예배로, 주일오후예배는 환자나 결석자 중심의 현장에 찾아가는 예배로 바꾸었다.

먼저 수요 사랑방예배는 교인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교인가정에서 주민들을 초대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설교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교인가정에 함께 자리한 분들의 가정이야기 혹은 농사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찾고 적용할 성경 말씀을 정하고 성경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해주고 예배를 마친다. 이런 형태의 수요 사랑방예배는 농한기에 실시하고, 농번기에는 오전에 함께 목욕을 다녀온 뒤 모두가 교회로 이동해 예배를 드린다. 함께 목욕에 동참했던 마을주민들도 차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집으로 갈 수 없기에 목욕하는 날에는 당연히 교

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주일오후예배를 주일순회예배로 전환을 했다. 아직 신앙의 연륜이 짧고 주일성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분들은 농사 일로 바쁠 때나 품앗이로 일을 할 경우에는 교회를 결석하게 된다. 이런 분들과 함께 외상노인들, 중풍이나 치매 등으로 바깥출입이 원만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예배를 드린다. 이때에는 찬송, 기도, 말씀, 마치는 기도 순으로 예배를 드린다.

아직은 비정기적이지만 주일예배 후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식사(월1회)와 간식나누기 그리고 이·미용봉사, 건강체크, 노래부르기, TV시청하기, 영화감상 등등의 문화와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새벽기도회는 없다. 필자는 올빼미형(취침시간이 새벽 2시- 6시까지)이라 새벽 활동이 쉽지 않다. 또한 성도들이 자동차로 모시러 가지 않으면 교회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여름에 더위를 피해 새벽에 일하고 겨울엔 눈 때문에 길을 나설 수 없기에, 새벽기도 대안으로 개인의 영성 관리를 위해 월1회 정기기도회를 평일 중 저녁시간 때에 실시한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사역과 이웃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등등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기도 연주회를 한다.

## 이렇게 전도하니 약발이 먹히네요

첫째, '말하지 않는 선교 방법'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교방법이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사역을 하셨다. 마태복음(4:23)에는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말씀 사역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행동 사역이다.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약

한 것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혹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인간을 구원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

예수님의 전도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막1:15/마4:17 참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적을 보이심으로써 전도의 메시지를 확증해주고 있다. 즉,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까운 것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보여주시면서 전도하셨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기’이다. “예수께서 이 열 둘을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10:5-8).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다. 주님은 약한 것을 고쳐주며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왜 고쳐주며 전해야 하는가? 약한 것을 고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교 -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벨후 3:13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의(義)가 있는 곳에 의롭

게 살아서 '의'를 보여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의롭게 사는 것은 바르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또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된다. 이런 개인과 공동체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전도 안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웃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을 멸시하거나 오히려 우리의 믿음 충만(?)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괴롭히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 같이 여기게 되리라(잠언 27:14).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 할 때 일반 대중들은 기쁘게 복음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눅 5:1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막 12:37). 예수의 복음을 싫어한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을 질투하거나 싫어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나중에 무리들이 예수를 버린 것은 고난을 통한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서였다. 예수님의 복음전파 방법은 대중을 무시하거나 괴롭힌 방법이 아니라 유익을 주고 기쁘게 해 주는 방법이다.

넷째,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한 차원 높은 삶의 단계 영위하기”이다.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의로운 것이므로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성도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의롭게 산다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삶이다.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다. 세상의 법이 허용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이 허용치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것 같고 무관심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지켜보고 있다.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의 약한 것

을 고쳐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과 통한다.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을 돕고 약한 것을 고쳐주면 거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라임을 명심해야 한다.

## 마무리

7년 간의 야전에서 경험으로 몸에 체득한 것은 “그들의 옷을 입자”는 것이다. 필자는 주일 낮 예배를 제하고는 양복을 입지 않는다. 지역의 지체 높으신 분들을 만나러 가도 면바지와 티셔츠에 운동화이다. 골짜기를 다니다가 언제든지 논두렁 밭두렁에 걸치고 앉아 냇물에 국수말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혹 어떤 분은 산골 사는 시골 목사가 양복 한 벌 못 사 입는 줄 알고 철마다 양복을 보내오는 분도 계시다. 그들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현장 목회에 적용하는 적용점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과 미소를 잃지 말자”는 것이다. 사역이 힘들수록 사랑과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위로와 채우심으로 함께 하셨다. 오늘도 열심히 달린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農